

The Future _ Real Power IX

휩쓸리지 않는 본질의 힘 '통찰력'

1. 영의 상태 - 자유함

육과 영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 '자유'이다. 영은 '혼'과 '육'과는 다른 차원을 말한다. 그래서 이사야 61:1절이 중요하다.

[이사야 61:1] 주 여호와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to proclaim freedom for the captives and release from darkness for the prisoners.(NIV)

주 여호와와 영이 임하면 포로된 자가 '자유하게 되고', 갇힌 자에게 '풀어짐'이 온다. 영어로 보면 'freedom', 'release' 하게 된다. 주목할 단어가 있다. 갇힘과 포로됨이 아니라 '포로된 자, 갇힌 자'라고 기록되어 있다. 물리적 갇힘과 포로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의 상태 자체가 포로되어 있고, 갇혀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이것이 '육'의 상태, 즉 노예의 상태이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너무나 실재적이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일을 분명히 기록한다.

[로마서 7:14]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결국 우리는 죄 아래에 노예로 팔렸다. 내가 아무리 좋게 보이는 삶을 살아도 신분이 노예라는 것은 절망이다. 노예가 노예를 비교하는 삶을 산다. 예를 들어 보자. 로마의 노예 시장에는 전쟁에서 잡혀온 포로된 노예들이 가득했다. 그들을 값을 내고 사는 것이 노예 시장이다. 마찬가지로, 죄의 노예가 잡혀온 노예 시장이 있다. 죄의 노예 시장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단 하나이다. 값을 지불하는 것이다. 사오는 것이다. 죄의 노예가 된 우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피로 값을 내고 사셨다. 그 순간이 바로 노예의 신분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골로새서 1:13-14]

13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14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14 In whom we have redemption through his blood, even the forgiveness of sins: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기 때문이다 ('redemption' 이 단어가 중요하다). 구속을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이해해야 분명해진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한다. 구속의 원 뜻은 값을 지불해서 다시 얻는 것을 말한다. 사탄이 주도하는 노예 시장에서 예수님이 모든 값을 치르셨다. 예수님의 보혈로 값을 치르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다.

2. 자유

자유는 무엇인가? 휩쓸리지 않는 상태, 묶이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자유'한 존재였다. (영적인 존재) 즉,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결정이며, 이 땅을 충만하게 하고, 번성하고, 다스릴 수 있는 '선한 결정, 가치있는 결정'이다.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가장 최고의 상태로 경작하고 다스릴 수 있는 존재였다.

사람에게 있는 자유는 무엇일까? 사람에게 있어서의 자유는, 스스로 하나님의 뜻과 같은 결정을 할 수 있는 선한 의지를 말한다. 사람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합된 존재였기 때문이다. (만들어진 의지가 아니다. 원래 그렇게 창조 되었다)

어떻게 그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 자유는 존재의 상태를 말한다 (노예의 상태가 묶임인 것과 같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두려움, 수치심, 걱정, 근심이 없었다. 바로 이것이 노예의 상태와 같다. 노예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망은 무엇일까?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이다. 결정권을 빼앗겼다는 것이다. 자신의 생각, 판단이 없다. 아니 자신의 생각, 판단, 결정이 아무 소용이 없다.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상태를 성경은 '염려'라 말한다.

[마태복음 6:31-33]

31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염려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염려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다.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안정감을 찾으려 한다. 안정감을 찾는 사람의 본능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무엇이든 붙잡으려 한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염려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먼저 그 나라를 구해야 하는 것과 같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황에 휩쓸리지 않는 것이다.

3. 두려움과 휩쓸림

자유가 없는 육적인 사람의 특징은 '판단력과 분별력'을 잃어버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휩쓸린다.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은 '대중'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이다. 대중이 만드는 흐름을 역행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교회가 언제 타락하는가? 사울이 언제 타락했는가? 하나님의 뜻 말고, 대중의 흐름을 따라갈 때였다. 모세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도전은,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는 백성들의 흐름과 마주해야 하는 것이었다. 대중들이 만드는 넓은 길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단호하다.

[마태복음 7:13-14]

13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크고 길이가 넓다)

- 들어가는 자가 많다. 크고 길이가 넓은 것이 진리가 되어버린 세상을 말한다. 멸망의 문이 진리로 둔갑된 세상을 말한다.

*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좁고 길이 협착)

- 찾는 이가 적다. 당연하다.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기 때문이다.

마귀는 사람의 두려움과 걱정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마귀가 쓰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무섭게 하는 것이다. 두렵게 하는 것이다. 노예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내 말 듣지 않으면 너는 죽어' 라는 말이다. 놀라운 것은 마귀의 이 거짓말이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만들었다. '너는 내 말 듣지 않으면 죽는다' 그 공포의 힘에 의해 사람이 움직인다. 바로 이것이 '종교'의 상태이다.

오늘 이 시대에 힘을 얻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라. '사람'의 두려움을 잘 안다. 이슬람의 예를 들어보자. 이슬람은 두려움의 종교이다. 계명을 어기면 자기 부모도, 자녀도 없다. 가차 없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분별력'을 잃고 휩쓸려 간다. 무엇이 문제인가? 분별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4. 본질을 꿰뚫어 보는 힘, '통찰력'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한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 어디에도 묶이지 말아야 한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 그 자유함이 감옥에서도 웃을 수 있고, 어떤 고난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준다.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바로 '통찰력'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주셨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통찰력이 있다.

[로마서 12: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 so that you may prove what the will of God is, that which is good and acceptable and perfect

로마서 말씀을 보라. 변화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good, acceptable, perfect)

5. 믿음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를 지지하시는 예수님, 내가 넘어져도 내게 용기를 주어 일어나게 하시는 예수님과 성령님을 믿으라. "나를 믿지 말고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믿으라." 그만큼 우리는 소중한 존재이다.

(1) 정보에 휩쓸리지 마라 - 정보는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 진리 위에 있으라.

(2) 내 속사람의 상태가 중요하다 - 속지 마라. 이미 나에게 자유가 있다. 기쁨이 있다. 평강이 있다.

(3)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 세상이 만드는 넓고 큰 길의 개념에서 나오라. 당신이 하는 모든 것이 소중하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